

## “바닥 표심 잡아라” 5명 후보 모두 현장·민생에 방점

### 6·3 지방선거 D-71

#### 민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본경선 전략

지지세 확산 총력...5차레 토론 분수령  
혼탁·과열...자질 검증 공방 격화 예고  
김영록 “민생 위해 더 많이 경청·고민”  
강기정 “시민들 목소리 정책 연결 집중”  
주철현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갈 것”  
신정훈 “성과 검증된 후보...비전 제시”  
민형배 “시민주권 통합 최우선 과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진출자 5명이 현장 목소리와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바닥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경선(4월3-5일)까지 2주정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후보들은 지지세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총 5차례 예정된 토론회를 통해 차별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정책·자질 검증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2·3면  
22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 토론회가 오는 25일 오후 6시 KBC광주방송 TV 토론을 시작으로 총 5차례 진행된다. 정책대담이 참여하는 권역별 토론회는 27일 오후 2시 전남 서부권, 28일 오후 2시 전남 동부권, 29일 오후 2시 광주권이 예정돼 있다. 마지막으로 오는 31일 오후 7시 KBS광주TV 토론이 열린다.



“일상 속 나무심기” 23일 오전 광주 서구 호남조경수유통센터에서 ‘2026 나무 나눠주기’가 열려 시민들이 보리나무, 서향나무, 동백나무 등 총 3그루의 수목을 배부받고 있다. 시민의 일상 속 나무심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광주시는 시민 2천명에게 1명 당 3그루의 나무를 무료로 배부했다. /조영권 기자

토론회에 이어 ‘권리당원 50%+국민여론조사 50%’ 방식의 본경선은 4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치러진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본경선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4월12-14일)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본경선 진출자(경선 기호 순)는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 강기정 예비후보(광주시장 직무정지), 주철현 국회의원, 신정훈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등 5명이다.

본경선 일정이 본격화하면서 각 후보 진영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기호 1번 김영록 예비후보는 “정치적 지지세

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굳이 광주와 전남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전남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더 많은 광주시민들을 만나고, 더 많이 경청하고 고민할 생각”이라고 본경선 대비 전략을 밝혔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광주지역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어려움 등을 파악해 민생을 좀 더 가까이서 보듬겠다”며 “광주권 발전 관련 고민도 치열하게 하고 있고 결과물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만큼 광주시민들의 성원에 꼭 보답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기호 2번 강기정 예비후보는 “당심이 곧 민심이요 민심이 곧 당심이다. 당원과 시·도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뛰겠다”며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힘이다. 중앙과 지역을 잇는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만큼 반드시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하겠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통합시장은 갈등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있게 해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호 4번 주철현 의원은 “어려울수록, 복잡할수록 기본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여수시장과 동부권 유일의 재선 국회의원, 당 최고위원, 전남도당 위원장을 거치며 성과로 검증받은 행정 능력과 정치 역량을 시·군·구민에게 진정성 있게 알리는 데 모든 것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전남·광주의 실질적인 대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들고 남는 경선 기간 동안 현장 구석구석을 찾아갈 것”이라며 “시·군·구민에게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설명드린다면 진심과 일할 능력을 인정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기호 5번 신정훈 의원은 “성과로 검증된 후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말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온 경험과 성과로 당원과 시민들에게 평가받겠다”고 본경선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겠다. 통합을 통해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국가균형발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보여줄 것”이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을 직접 만나고 지역 곳곳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는 낮은 선거로 신뢰를 쌓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6번 민형배 의원은 “제1호 공약인 시민주권정부의 가치를 현장에서 증명하겠다”며 “경선의 승부처가 시·도민의 목소리에 있음을 확실한 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본경선 승리의 열쇠는 시민의 마음 속에 있다”며 “7개 시·군·구 민심투어를 이어나가며 시·도민과 함께 만드는 시민주권 통합을 실현하겠다. 현장에서 발굴한 정책, 내 삶을 바꾸는 진짜 변화를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 내달 1일 ‘공항 통합이전’ 무안군민 설명회

### 국방부 주관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 이전절차·정부 지원책 설명 의견 수렴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자 지정 속도낼 듯

국방부가 무안을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지정하는 데 앞서 오는 4월 1일 무안군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남도는 23일 “4월 1일 오후 2시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국방부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전 단계에서 마련됐다.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에선 ▲군공항 이전사업 절차 ▲광주군공항 국내선 이전 ▲이전주변지역 지원 방안 ▲정부 차원 지원 사업 등을 설명한다. 특히 설명 직후에는 국방부와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주민들의 질의에 직접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17일 대통령실 주관 6자 협의체 합의 이후 정부와 광주시, 무안군과 협의를 이어오며 주민 지원 방안과 지역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에도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

출을 위한 특별법에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조항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무안 국가산단의 신속한 지정과 이전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설명회를 계기로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이전부지 선정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정부와 협력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설명회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무안군민과 충분히 소통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 방안이 실질적으로 마련되도록 정부와 함께 책임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시원 기자

## 민주 광주 구청장 경선 투표 돌입

### 남·북구 내일까지 예비경선 동·서·광산 24-26일 본경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6·3 지방선거에 나선 광주지역 5개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투표를 24일부터 시작한다.

25일 민주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5개 기초단체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선거구별로 예비경선과 본경선으로 나눠 실시한다.

남구·북구는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예비경선이 진행된다. 남구 5명, 북구 7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100% 권리당원선거인단 투표 방식이 적용된다. 투표는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까지 강제적 ARS 투표 방식으로 총 5차례 진행된다. 미참여 선거인단은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발적 ARS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결과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발표되며 남구는 2명, 북구는 5명의 본경선 진출자가 확정된다.

동구·서구·광산구는 곧바로 본경선에 돌입한다. 경선은 권리당원선거인단 투표 50%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 50%를 합산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치러진다.

권리당원 투표는 예비경선 지역과 동일하게 24-25일 이틀간 ARS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25일에는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투표 결과는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께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동구·광산구는 1위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상위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광주시당 선관위는 권리당원 선거인단 대상 강제·자발적 ARS투표에 사용되는 발신·수신 번호를 해당 투표일 아침 광주시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일반 시민 대상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 발신번호는 당규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변은진 기자

### Today

- ▶함평 “축산자원부이전 보상을” 6면
- ▶반려동물 허용 “펫코노미” 확산 12면
- ▶KIA 퓨처스홀 개막전 이벤트 풍성 16면

2026.03.01 ~ 2026.05.31

## 매일매일 골라 즐기는 남도한바퀴

**남도한바퀴**

온라인 구매 검색창에 **버스한바퀴** | 홈페이지 내 **남도한바퀴** 예매  
<https://www.kumhoaround.com>

전화콜센터 ☎062)360-8502

유의사항

- 유·스퀘어(광주중합버스터미널) 2번층, 광주 송정역(시외버스정류장) 정식 출발
- 예약 문자 확인 후 탑승
- 식사·입장료·개인비용 미포함(개별부담)
- 차량보험 가입 / 여행자보험 미포함(개별 가입 권장)
- 날씨·현지사정·교통상황에 따라 일정 취소 또는 일부 코스 변경 가능
- 기상 악화시 당일 아침 취소 가능
- 실내 음식 섭취 시 대화·이동 자제 ·차량 내 음식주 타인 피해시 도중 하차 조치
- 8명 이상 단체 예약 탑승 제한 가능 / 부분 취소 불가(전체 취소수수료 적용)
- 환불 규정: 출발 4일 전 100%, 3일 전 90%, 2일 전 80%, 1일 전 70%, 출발 당일엔 환불 불가

**전라남도** **협관** **관광재단** **금호고속**